

Hymn 404 -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Capo 1 (original in Eb)

D A D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than tongue or pen can ever tell

D A D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It goes beyond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to the lowest hell.

G D A -7 D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사
The guilty pair, bowed down with care, God gave His Son to win;

G D A7 D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 -하 -셨네
His erring child He reconciled and pardoned from his sin.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의 영화 쇠할 때
When years of time shall pass away and earthly thrones and kingdoms fall,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When men, who here refuse to pray, on rocks and hills and mountains call;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베푸사
God's love so sure shall still endure, all measureless and strong.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Redeeming grace to Adam's race, the saints' and angels' song.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Could we with ink the ocean fill, and were the skies of parchment made,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Were every stalk on earth a quill, and every man a scribe by trade;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To write the love of God above would drain the ocean dry;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Nor could the scroll contain the whole, though stretched from sky to sky.

G D A D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 -하며
O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G D A7 D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요 3:16, F. M. Lehman
made by musicday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의 영화 쇠할 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주 믿지 않던 영혼 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화 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